

주제: 현대 일본 생활세계 연구의 세계적 거점 구축

(1) 주제 선정 배경과 목적

현대 일본은 패전과 전후개혁→고도성장→탈성장과 후기자본주의→장기 경제불황과 정치적 보수화의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인 변화와 재편을 경험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가속화된 사회전반의 글로벌화는 전후 일본사회가 고도성장기를 겪으며 확립시켜 온 제도적 틀과 문화적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후형 일본사회를 근저에서 뒷받침해 온 '정체성'과 '경계'들이 동요하면서 일본형 모델의 '붕괴'를 주장하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른 필연적인 '재편 과정'이라는 진단도 제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사회는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일본형 모델의 '붕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전통적' 제도와 관념은 해체된 듯 보이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재등장하고 있다. 동시에 후기 산업사회 문명이 갖는 전지구적인 문화적 징후들도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현대 일본인들의 삶과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거품 붕괴' 이후 1990년대 일본은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컬어지지만,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다양한 역동적인 움직임과 새로운 시도들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 일본지역연구는 그러한 복잡성과 역동성을 섬세히 포착하면서 일본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소가 종합적인 일본연구를 위한 키워드를 '생활세계'로 설정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같은 인식에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연구는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 영향 하에 '탈식민'을 위한 '이념적' 목적의식에 좌우되거나 '실용성'을 근거로 따라잡아야 할 모델로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일본어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연구는 현재의 일본사회의 맥락성과 역사성에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채 진행됨으로써 당대의 쟁점에 대한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한일간의 역사적, 정치적 '근접성'은 몇가지 단순화된 이미지와 틀에 의거해서 일본을 파악하게 만들어 일본 관련 지식의 지나친 '쑈림' 현상을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연구의 보편화(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본연구와 연동된 지식 창출)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일본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현대 일본인의 삶과 의식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지식 축적이 절실하다. 본 연구소는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를 장기간에 걸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축으로 하여 일본에 관한 학문적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격차 확대, 다문화화, 환경 문제 등등 최근 일본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들은 상당 부분 한국사회에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국경을 넘어서 공유되는 문제들이다. 거시적인 흐름, 구조적 변동이 생활세계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생존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주체와 시스템이 형성되는지, 이러한 점들을 탐구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하고, 국경을 넘어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들(과제의 권역화, 글로벌화)에 함께 대응해갈 수 있는 주체와 동력의 형성에도 공헌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 연구는 한일간의 미래지향

적인 관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된다.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잊는다거나 덮어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인 유산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차원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새로운 일본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세계’는 그런 점에서도 의미있는 연구 영역이라고 하겠다.

(2) 일본연구소의 연구활동 방향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소는 ‘정체성과 경계의 변용과 재편’이란 분석 틀을 통해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역학을 조망하고자 한다. 젠더, 세대, 민족, 계층, 지역 등을 중심축으로 벌어지는 정체성과 경계의 변화와 재편 양상을 분석하고, 삶의 가치, 가족과 공동체, 일과 여가 등의 영역을 둘러싼 일본인들의 의식과 욕망의 변화상을 조망함으로써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의 축적을 도모한다.

현대 일본의 생활세계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활세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공동체, 정체성, 의식과 욕망, 일상과 실천의 역학을 심도 있게 조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성의 문제에 천착해 온 인문학적 시야와 역사적 맥락성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이 꼭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축적된 한국 내 일본학 연구진, 특히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춘 인문학 연구자들과 보다 연성(soft)의 방법론과 관점을 갖춘 사회과학자의 등장으로 기존의 일본연구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일본연구를 시도할 기반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유연한 시각을 갖춘 연구자들이 시너지효과를 내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장을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함으로써 장기적인 비전으로 한국의 일본연구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2) 3단계 기획연구

3단계 기획연구 주제는 [전후 일본의 구조적 대전환과 생활세계의 재편]이다.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간 일본사회에서 발생한 구조변동은 우리가 친숙했던 ‘전후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회를 초래했다. 최근 들어,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정치적 영역의 보수화는 일상에 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또한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일본사회를 뒷받침해왔던 제도가 가족관계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고용시스템,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는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해 ‘탈 전후’에 대한 사상적 모색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10년 간의 HK사업을 마무리하는 3단계에서 ‘전후 일본’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양상을 정치, 경제, 사상, 사회문화의 차원에서 횡단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내용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주제하에 남은 4년간(2014.9 ~ 2018.8)을 2단계로 나눠 기획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